

“함께 걸어 온 27년, 정착을 넘어 자립으로”

- 「하나원 개원 27주년 기념 행사」 개최(7.7.) -

-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(이하 ‘하나원’)는 7월 7일(화), 북한 이탈주민(이하 ‘북향민’)의 성공적인 사회 정착을 위해 힘써 온 기부자와 봉사자, 그리고 교육생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「하나원 개원 27주년 기념행사」를 개최했다.
 - 하나원은 지난 27년 동안 3만 4천여 명의 북향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자 동반자로서 그 여정을 함께 해왔다.
- 이번 행사는 오랜 기간 북향민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보내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동시에, 교육생들의 고단함을 위로하고 언제든 기댈 수 있는 ‘고향’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.
 - 행사는 기념식을 시작으로, 하나원 심화과정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「희망 토크 마당」,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.
 - 특히, 기념식에서는 북향민 지원 업무에 헌신해 온 유공자 10명에 대해 통일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.
- 최용석 하나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“보이지 않는 곳에서 베풀어 주신 정성과 나눔은 단순한 지원을 넘어 북향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새로운 삶을 향한 희망이 되었다”라며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했다.
 - 이어, “앞으로도 하나원은 북향민들의 든든한 마음의 고향이 되어줄 것”이라며, “안정적인 정착과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우리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
- 「희망 토크 마당」에서는 자립에 성공한 심화과정 수료생들이 정착사례를 발표하고, 교육생들과 질의응답도 나누면서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 겪었던 다양한 경험과 방법을 후배 교육생들에게 전했다.
 - 선배 수료생들은 “정착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특별한 능력보다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”며, “가장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삶을 선택한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다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”라고 후배들을 격려했다.
 - 교육생들은 “선배님들 역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끝까지 노력해 자신의 꿈을 이룬 모습을 보며, 사회에 나가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동기를 얻었다”며, “이러한 소중한 만남을 마련해 준 하나원 관계자들에 감사드리며, 앞으로도 선배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다”는 소감을 밝혔다.
-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는 북향민 예술인들로 구성된 ‘북한백두한라 예술단’의 전통문화 공연이 펼쳐졌다.
 -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향민 예술인들은 이번 전통문화 공연을 통해 교육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고 북향민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남북 화합 및 평화통일을 기원했다.
- 앞으로도 하나원은 북향민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, 성공적인 정착 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·공유하여 교육생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착 지원 과정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.

- 붙임 : 1. 「하나원 개원 27주년 기념」 행사 개요
 2. 관련 사진(별첨)

담당 부서	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	책임자	과 장	이태재 (031-670-9340)
		담당자	사무관	안광자 (031-670-9341)



1 개요

- (일시·장소) : '26.7.7.(화) 10:30~13:00, 하나원 체육관
- (참석자) : 기부자·자원봉사자·교육생·인근마을 주민 등 100여 명

2 진행 순서(안)

시 간		내 용
기념식 (30')	10:30~11:00	유공자 표창, (장관 표창 8명, 원장 표창 2명) 하나원장 기념사, 남북하나재단 사무총장 축사 등
희망 토크 마당 (50')	11:00~11:50	심화교육 수료생의 좌충우돌 정착기
오찬 및 축하공연 (70')	11:50~13:00	축하공연 ('북한백두한라예술단')